

젓소 이야기



元 鍾 益
국토개발연구원

1. 어릴때 본 젓소

내가 젓소를 처음 본것은 국민학교에 입학해서였다. 당시는 일제하여서 한창 2차대전이 치열했던 시기이므로 모든 물자가 귀하고 식량을 증산한다는 구실아래 학교의 운동장을 개간하여 옥수수를 심었을 정도니까 식량난이 극심하던 때였다. 국민학교에 입학하니까 거기에 검정과 흰색의 얼룩진 젓소가 단 한마리 있었다. 어린이들은 “저게 젓소래”하면서 신기해 했고 5~6학년 상급생들은 홀스타인종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그 젓소에서 짜는 우유는 일 본인 교장과 교감실에서 먹는다고 들었다. 지금 기억에 남아 있는 당시의 그 젓소는 별로 생기가 없고 우유도 많이 나는것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한번도 우유짜는 장면을 본 일도 없고 그 젓소가 언제나 좁은 축사에 매어 있으면서 아동들이 던져 주는 먹이만으로는 늘 배가 고픈 듯 보였기 때문이다.

축사에는 닭도 여러마리 치고 있었고 토끼도 있었으며 돼지도 서너마리 있었는데 토끼장 앞에서는 어린이들이 늘 모여서 풀을 주고 있었지만 젓소에게 풀을 베어다 주는 어린이는 별로 없었고 5, 6학년이 실습시간이 되어야 풀을 베어다 주는 정도였다.

마을 어른들은

「저 소는 일도 안하고 먹기만 한다지, 그런 소를 무엇하러 길러」

하면서 젓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며 전혀 쓸모 없는 가축으로 치부하던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는

「우유는 먹어서 무얼해, 사람이 사람젓 먹어야지. 그리고 다 큰 사람이 젓을 먹다니 별꼴다 있군-」

이런 식으로 젓소와 우유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러나 해방이 되었다.

우유를 먹던 일본인 선생들이 모두 쫓겨가오 나니까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던 젓소는 그야말로 천덕구러기가 되어 먹이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여 여윈 모습으로 지내다가 끝내 죽어버렸다고 들었다.

이것이 내 기억에 있는 최초의 젓소였고 어느사이엔가 「일을 하지 못하고 놀고 먹기만 하는 젓소는 일하는 소에 비해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관념이 박히게 되었고

「사람이 밥 먹으면 되었지 우유는 먹어 뭘해」라는 관념이 지금까지도 잠재의식에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나는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져 우유는 먹지 않는다.

그렇지만 야구르트도 먹고 버터도 끈질 먹는다.

2. 소년기의 젖소

그후 중학은 농업학교를 다녔다.

당시는 6년제 중학이었으니까. 지금의 중고등학교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농업학교이므로 실습장으로 논·밭도 상당히 넓었고 축사도 규모가 컸다.

여러가지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도 젖소가 다섯마리 있었다.

지금이야 농업고등학교에 젖소 다섯마리 있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도 않으며 오히려 빈약한 편이지만 당시의 내 눈에는 대단한 것으로 보였다. 그 밖에 한우도 종우(種牛)로 쓸 아주 잘 생긴 황소가 한마리 있었고 암소와 송아지를 합해 서너마리 있었는 것으로 기억된다.

내 관심은 당연한 일이듯이 젖소에게 쏠렸다.

그것은 국민학교 때의 젖소가 놀고 먹는다는 푸대접 때문에 결국은 굶어죽다 싶이 된 가없는 기억이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다니던 그 농업학교는 당시 농과와 임과의 두과뿐(나중에 고등학교로 된 뒤 축산과가 생겼다)이었기 때문에 가축의 관리는 농과의 소관으로 되었고 2주일에 한번씩은 젖소 당번이 돌아 왔었다.

상급생(5학년이 최고학년이었다)까지 합해서 20여명이 당번이 되기 때문에 우유를 짠다든지 그 밖의 가벼운 일은 상급생 차지이고 하급생인 나는 언제나 꼴을 베어 오거나 마굿간을 치우는 일같은 고역이 돌아왔다.

이 때 매일 짜내는 우유는 선생님들이 우유값을 내고 사서 마시는 외에는 내다 팔았다.

인구 2만정도의 작은 읍에서는 우유를 팔 시장이 좁아서 매일 학생들이 상자에 넣어 메고 다니는 우유가 다 팔리지 않아 상급생들이 팔다 남은 우유를 먹어 치우는 광경을 가끔 보았고 이때 젖소가 송아지를 낳는 광경도 보았다.

이때의 젖소들은 영양도 좋았고 우유도 잘 나왔으며 관리도 철저하여 매우 잘 길러지고 있었다.

읍내에 우유를 팔러 나가면

「우유가 사람에게 좋는지」

「좋기는 뭐 그저 그렇겠지. 아기를 낳아도 젖이 안나오는 엄마가 모유대신에 사 먹이겠지」.

「좋기야 하겠지만 돈이 들잖아」

이런 식이어서 우유는 모유가 없거나 부족한 집이거나 만성병을 앓는 환자가 있는등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면 사지 않았다. 그래서 늘 절반 가량은 학생들 그것도 상급반 학생들이 먹어치우기 일쑤고 임과 학생들이 종종 찾아와서 같이 먹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같은 반 꾸러기들이

「우유는 상급생만 먹으라는 법 있느냐. 우리도 먹어 보자」고 의논을 하여 방과후에 몰래 젖소 축사에 들어가 우유를 짜보았다.

서투른 솜씨로 히히덕거리며 도시락에다 받아서 먹은 우유맛은 내 입에는 싱거운 맛 뿐이어서 즐겨 먹을것이 못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튼 소 발걸에 채이면서 한사람이 빈 도시락에 하나씩 우유를 짜서 마셨던 것이다.

개중에는 「맛있다」고 더 먹겠다는 친구도 있었다.

그러던 그 뒤가 좋지 않았다.

이날 우유를 몰래 짜서 먹은 4, 5명이 모두 그날밤 설사를 했던 것이다.

그때문에 결국 양호실(당시는 그런 시설이 없어 읍내 의사를 지정해 두고 전화로 부르면 오도록 되어 있었다) 신세를 졌고 우유를 잘못 먹었다는 사실을 실토한 끝에 축산 담당 선생님께서 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고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알게 되었다.

즉, 우유는 짠 뒤 40도 가량의 온도에서 30분 내지 한시간 소독을 해서 마셔야하며 젖이 말랐다가 다시 젖이 날 때 이것을 초유(初乳)라고 해서 지방분이 많기 때문에 먹으면 설사를 한

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당장 짠 우유를 송충마시듯 별
걱별걱 마셨으니 설사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
이었다.

그후부터 나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젖소와 우유에 대하여 조금씩 이
해하게 되었을 때 마침 6.25 동란이 터지는 바
람에 학교도 젖소도 모두 먼 기억속으로 사라
지고 말았다.

3. 청년기의 젖소

대학에도 역시 농과대학을 다녔다. 마침 신
설된 농과대학이어서 아직 농장이 마련 되기 전
이라 농과 대학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서 과히 멀
지 않은 곳에 실습장으로 논밭이 약간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어 몹시 아쉽게 생각
되었다.

6.25는 모든 면에서 우리들에게 「황폐로부터
의 재건」을 뜻하는 것이었고 전후 부흥이 지상
과제였던 시절이다.

대학에서 4-H클럽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근교의 농촌에 나가 4-
H클럽 회원인 농촌 소년들과 많은 접촉을 가졌
고 이들과 어울려 농사 과제도 실시했다.

그때 4-H클럽을 통해 「가축은행」을 만들
자는 안이 나왔다.

내용은 미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젖소를
받아서 4-H클럽에서 기르게하고 송아지가 나
면 어미소는 길러준 4-H클럽의 차지로 되고
송아지는 가축은행에 넣어 다음 희망자에게 분
양해 준다는 것으로 어미소에서 얻는 우유를
팔아 4-H클럽의 비용에도 보태고 농촌 소년
들에게 젖소 기르기의 실습을 통해 낙농의 경
험을 얻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최초로 미국에서 3마리인가 하여
튼 무상원조로 생후 1년 가량의 젖소가 비행
기를 타고 오게 되어 이것을 서울 근교의 지금

의 신도읍 근처인 농촌 4H클럽에 한마리. 또
한마리는 수원 근교, 다른 한마리는 덕소 근처
의 4-H클럽에 각각 입식되었다.

이 소들이 입식되던 날은 온 동리가 잔치기분
에 쌓이고 면장과 학교 교장이 참석하는 등 식
전까지 올린 뒤 4-H클럽 대표들에게 인계되
었다.

또한 농촌의 어린이들도 이 얼룩얼룩한 새손
님을 놀라움과 희망을 가지고 맞아 들였었다.

그런데 이 소들의 뒷 이야기가 별로 좋지 않
았다.

한달 뒤에 둘러 보니

「젖소가 왜 젖이 나지 않느냐」고 했으며 4-
H클럽 회원의 공동 사육이다 보니 기르는 책
임자가 없어(소유자가 확실치 않아) 마굿간도
마땅치 않고 먹이도 주기 힘들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젖이 안나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
에 1년가량 더 길러 새끼를 낳은 뒤에야 우유를
팔 수 있다고 설득했다.

기르는 문제는 우선 공동으로 축사를 짓든지
아니면 소 없는 집의 마굿간을 빌려 회원들이
당번제로 기르면서 일지를 써가며 젖소 기르
기의 실체를 수습하는 것으로 지도했다.

6개월 가량 지난뒤에 돌아보니 세곳이 모두
「젖소를 무상으로 주는 것도 반갑지 않으니
도로 가져 가라」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마을
어른들이

「일도 시킬 수 없으며 먹기는 한우보다 더 많
이 먹는 젖소를 기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
유였고

「소가 병이 생겨 수의사를 데려다 보이고 치
료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 사람이 아
파도 병원에 못가는 처지인데 소의 치료비까지
부담해서야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였다.

이러한 우여 곡절을 거치는 가운데 다음해
봄에 현지를 둘러 보니 소들이 보기 흉하게 여위
어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상적인 씨불임이 어

려운 형편이었고 하나 같이 「도로 가져가라」고 손을 든 상태였다.

1년후에는 새마리 가운데 한마리가 병이 들어 죽어 버렸고 다른 한마리는 「내가 한번 길러 보겠다」는 어느 독농가에게 기증하고 말았으며 나머지 한마리는 자원 지도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무상으로 분양해 버렸다.

이렇게하여 「가축은행」의 꿈은 깨어 지고 말았으며 「일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젖소는 그때까지도 농촌에서 외면되었으며 발 붙일 곳이 없는 듯이 보였다.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더 있다.

젖소를 무상으로 받은 독농가E씨와 4H클럽 자원지도자 P씨는 무사히 송아지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기까지 젖소를 길러 내기는 했지만 막상 우유를 팔려고 하니가 도무지 팔리지 않아 다시 한번 곤욕을 치루었다고 전했다.

즉 팔리지 않으니까 우선 집안 식구들이 먹어야 했고 몸에 좋은 줄은 알지만 어저지로 먹어 치우려니 그것도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독백이며 마을 사람들은 공짜로 먹으라는 것도 좀체 응하지 않더라고 솔희했다.

그래서 나는 젖소 기르기와 우유를 짜서 돈을 얻는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4. 젖소여! 우유여!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되고 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가운데 농촌근대화와 농업의 다각경영. 그리고 축산진흥사업이 본격화 하고부터 우리나라에도 젖소가 대대적으로 정책의 지원을 받아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도처에 목장이 생기고 우유를 마시게 되었으며 아이스크림이 우유로 만들거나 옥수수 가루로 만들거나 간에 여하튼 우유를 팔리게 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둥글고 높은 빨간 지붕의 사이로가 솟아 있고 넓은 초원에서 젖소

가 풀을 먹는 그림같은 목장의 장면이 하나의 이상적인 농가상으로 비치게 되었다.

벌써 10여년전의 일이다.

어느 선배 한분이 정년으로 퇴직하여

「이제 직장에서도 나왔으니 어디가서 목장이나 하면서 우유 자적하게 살란다」고 하셨다.

「선배님은 젖소를 길러 본 일이 있습니까」

「아따 이 사람아 소는 다 소지. 젖소라고 뭐 특별한 동물인가 기르면 되겠지. 그리고 요즘은 우유시세도 좋다는데...」

「글쎄요. 한참 고생 하실터인데요」

「힘 안드는 일 있나. 아무튼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며 조용히 살려네」

이렇게 하여 C씨라는 선배는 정년 퇴직으로 받은 퇴직금 기백만원을 들여 천안과 서울 사이의 어느 도로 연변에 목장을 마련하고 젖소를 들여 왔다.

욕심도 많지 단번에 미국의 순종을 도입한답시고 20두의 젖소를 들여 왔는데 절반은 눈에 익은 검고 흰 얼룩의 젖소였으나 나머지 절반은 보통 한우처럼 생긴 누렁소가 도착했다.

이 선배는 미국인이 속여서 젖소는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고 펄펄 뛰었다.

「그런것이 아니고 젖소 가운데 누렁소도 있습니다. 검고 흰 얼룩의 홀스타인 계통은 우유와 고기의 양쪽을 얻기 위해 개량된 것이며 일본인들이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젖소라면 무조건 얼룩이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유생산이 많은 정통적인 젖소는 누렁소이라구요. 크게 득을 보았다고 생각 하십시오」

이렇게 설득하여 목장은 시작되었다.

1년후 C선배는 나를 만나자 말자

「자네 말이 옳았어. 목장이 슬슬 편하게 살자는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야. 나 고생했고 더 고생해야할 것 같아. 아무튼 시작했으니 끝을 보아야지」

이야기를 들은즉 3마리가 그동안 병으로 죽

있고 12마리가 겨우 새끼를 배었으며 5마리는 지금 우유를 짜고 있는데 그 전사하기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유값이 어떻다는 것은 따질 여유도 없고 어떻게하면 죽이지 않고 먹여 내느냐가 당면 문제라고 하면서 배합사료를 사들이는 자금부담이 큰일이라고 했다.

몸은 야위고 백발은 늘었으며 상당한 지위에 있을 때와는 달리 손이 무척 험해져 있었다.

그후 5년이 지난 뒤

「이제 한 숨 돌렸네. 지금은 50마리로 늘어

전문가 소리를 듣고 있네. 우유값이 너무 헐해서 채산성이 좋지 않지만 그런대로 이제는 자신이 섰네」

지나는 길에 들렀더니 목장도 규모가 짜이고 소들도 기름이 흘렀다. 누렁젖소도 무사히 번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젖소 기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유를 마시는 분들에게 이 사연을 알려 두고 싶었던 것이다.

乳 業 統 計

(' 83년도 4 月分)

1. 生産消費動向分析

가) 原乳生産

80~82上半期에 下落勢를 보이던 原乳生産은 '82下半年期부터 점차 增加를 보이다가 '83. 1~5 月에는 前年對比 28.2%의 큰 幅으로 增加되고 있으며 '83年間 계속 增加될 것이나 增加幅은 20%内外로 展望됨.

原乳生産의 增加要因은 '82年 導入牛 9,232頭 (10,000頭中 事故畜 除外)의 搾乳牛와 젖소 가 격양등에 따른 도태율의 減少(82/81:60.9%)에 의한 것으로 推定됨.

參考: 젖소(암소) 도태 두수

'81: 27,082頭 '82: 16,493頭

나) 牛乳消費展望

全般的인 景氣振作과 牛乳認識 提高로 因하여 前年對比 27.2%의 높은 增加를 보이고 있는 反面 加工市乳와 煉乳는 下落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白色市乳, 치즈, 脫脂粉乳는 큰 幅으로 增加하고 있으며 계속 增加勢를 維持할 展望임.

1) 市 乳

白色市乳는 最近 3 個年 平均增加率(28.0%)보다 높은 34.2%의 增加를 보이고 있음은 積極的인 學校牛乳給食의 推進과 白色市乳認識度가 높아진 要因이며, 反面 加工市乳는 前年水準에 머물고 있음.

2) 粉 乳

調製粉乳는 '82年開發한 新製品의 販賣增加로 最近 3 個年平均增加率 6.2%를 上廻하는 15.0%의 增加를 보이고 있으나 全脂粉乳는 前年水準에 머물고 있고, 脫脂粉乳는 醱酵乳의 增加에 힘입어 前年對比 45.0%의 큰 幅의 增加를 보임.

3) 其他品目

醱酵乳는 80~81年 下落勢였으나 '82下半年期부터 增加하여 前年對比 14.3%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음.

치즈는 總量 자체가 微少하므로 前年對比 40%로 큰 幅의 增加를 보였으나 아직 많은 消費量은 아님. 煉乳를 除外한 各品目이 前年對比 약간 增加勢를 나타내고 있음.